

개나리반 / 진달래반 9월 놀이 이야기

보러가기

가을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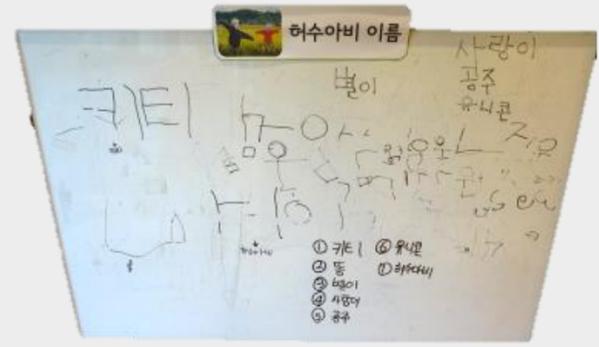
동화 '가을이 왔어요.'를 듣고 동화 장면에서 나오는 잠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 '자리자리 잠자리'를 듣고 직접 만든 잠자리를 활용하여 놀이해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잠자리~



이후, 동화 '허수아비가 된 게으름뱅이'를 듣고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어보았습니다.
허수아비를 완성하고 어린이들과 이야기 나누어 이름을 정하였고
소나무반 형님들의 배추 텃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해주었습니다.



나는 유니콘!

나는 키티!



- 은행잎과 단풍잎 도장을 찍어 나무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에 볼 수 있는 코스모스, 다람쥐, 도토리 등 스텐실 기법으로 찍어보며 가을 배경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가을 배경은 출석 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가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가을 디오라마에서 인형을 움직이며 이야기 짓기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 가을과 관련된 퍼즐을 맞춰보고 가을 열매 마라카스를 흔들며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동화 '나는 도토리'



동화를 듣고
다람쥐와 도토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람쥐 먹이 주기 놀이,
다람쥐 흉내내기 등 다람쥐와
관련된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놀이



동시 '다람 다람 다람쥐'



요리 '밤 송편'



게임 '알밤 모으기'



다람쥐가 알밤을 줌을 동시를 듣고 알밤을 모으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송편 속에 밤을 넣어 밤 송편을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

단풍 나무를 찾아라!

게임 '단풍 나무 완성하기'

우리가 물감으로 찍어서 만든 단풍잎으로
단풍 나무를 완성하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게임을 통해 단풍잎의 모양과
생김새, 색깔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책 "단풍잎 찾기"

색이 변하고 있어!



단풍잎
찾는 모습



빨간색, 초록색 단풍잎을 발견하고
단풍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도 보았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정말 단풍잎이 보족한지, 어떤색인지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단풍잎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산책하면서 은행도
발견했어요!
"누가 방귀뽀뽀 아니야?"

